



충동성은 정신병리, 신경심리학, 성격 등 심리학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구성개념이다 (Moeller, Barratt, Dougherty, Schmitz, & Swann, 2001). DSM-IV에서 충동조절장애가 질병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양극성 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및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중요한 세부 진단기준으로 충동성이 포함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그 밖에 폭식(Claes, Nederkoorn, Vandereycken, Guerrieri, & Vertommen, 2006), 알코올남용(Cyder & Smith, 2007), 위험 성 행동(Zapolski, Cyder, & Smith, 2009), 강박적 쇼핑(Billieux, Rochat, Rebetez, & Van der Linden, 2008), 모바일 폰 중독(Billieux, Van Der Linden, & Rochat, 2008) 등의 다양한 정신병리를 이해하는데 충동성은 중요한 개념이다. 충동성은 기능적 충동성과 역기능적 충동성으로 분류되기도 하고(Dickman, 1990), 심사숙고 하지 않고 생각하기, 감각추구, 위험감수, 보상 민감성, 지루함 민감성, 모험심 등의 다양한 특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Depue & Collins, 1999). 이렇듯 충동성의 개념화와 측정에 있어서 여러 이론과 학자들간의 합의된 바가 부족하였던 점이 충동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어렵게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Evenden, 1999).

충동성에 기저하는 다양한 차원들을 확인하고자, Whiteside와 Lynam(2001)은 주로 사용되고 있는 8개의 자기 보고식 충동성 척도들(EASI-III Impulsivity Scales; Buss & Plomin, 1975: Dickman's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Impulsivity Scales; Dickman, 1990: Barratt Impulsiveness Scale - 11; Patton, Stanford, & Barratt, 1995: 1-7 Impulsiveness Questionnaire; Eysenck, Pearson, Eating, & Allsopp, 1985:

Personality Research Form Impulsivity Scale; Jackson, 1984: Mult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Control Scale; Tellegen, 1982: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Cloninger, Przybeck, & Svrakic, 1991: Sensation Seeking Scale; Zuckerman, 1994)과 NEO-PI-R을 요인분석하여 부정적 긴급성, 계획성 부족, 지속성 부족, 감각추구 등의 총 4개의 하위 요인들로 구성된 새로운 충동성 척도(UPPS)을 개발하였다. Cyder, Smith, Spillane, Fischer, Annus와 Peterson (2007)은 이론적 근거와 부정 긴급성 문항을 토대로 예비문항을 작성하고 내용타당도 분석을 거쳐 긍정적 긴급성 요인을 개발하게 된다. 긍정적 긴급성을 UPPS 4요인들과 함께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가지 요인들은 1 이상의 아이겐값을 보이며 뚜렷한 5요인 구조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Cyder et al, 2007). 이렇게 해서 긍정적 긴급성이 추가되어,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충동성 모델(UPPS-P)이 완성되었다. Whiteside와 Lynam (2001)은 Costa와 McCrae(1992)가 제시한 성격에 대한 포괄적인 모델인 5요인 모델(Five Factor Model)을 자신들이 개발한 충동성 모델의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다차원적 충동성 모델은 충동적인 행동에 이르는 5가지 성격 경로(personality facets)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첫째, 부정적 긴급성(negative urgency)은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둘째, 긍정적 긴급성(positive urgency)은 강렬한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성 말한다. 부정 긴급성과 긍정 긴급성은 5요인 성격 모델에서 신경증의 충동성 요인(impulsiveness of neuroticism)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의 충동성 척도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다.

셋째, 계획성 부족(lack of premeditation)은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숙고하는 경향성의 부족으로 정의된다. 이는 5요인 성격모델에서 성실성의 신중성 요인(deliberation of conscientiousness)과 관련되며, Barratt 충동성 척도의 비계획성 충동성(non planning)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지속성 부족(lack of perseverance)은 지루하고 어려운 과제에 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을 말한다. 5요인 성격 모델에서 성실성의 자기 규제성 요인(self-discipline of Conscientiousness)과 관련되며, 긴급성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충동성 문헌들에서는 비슷한 개념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섯째, 감각추구(sensation seeking)란 흥분되는 활동을 즐기고 추구하는 경향성,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으로 정의되며, 5요인 성격모델에서 외향성의 흥분추구 요인(excitement seeking of extraversion)과 관련된다. Whiteside와 Lynam(2001)은 다차원적 충동성 모델은 여러 학자나 이론들간에 혼란되어 있는 다양한 충동성 개념을 성격적 관점에서 분류하고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UPPS-P 5가지 충동성 요인들은 신뢰도 계수가 양호하며, 상호 상관을 보이면서도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충동성의 하위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반복검증되고 있다. UPPS-P 척도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판에서도 양호한 신뢰도와 요인구조가 검증되어 본 척도의 타당도가 확증되고 있다(Billieux, Rochat, Ceschi, Carré, Offerlin-Meyer, Defeldre, Khazaal, Besche-Richard, & Van der Linden, 2012; Kämpfe & Mitte, 2009; Van der Linden, D'Acremont, Zermatten, Jermann, LarØi, Willems, Juillerat, & Bechara, 2006; Verdejo-García, Lozano, Moya,

Alcázar, & Pérez-García, 2010).

UPPS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Smith, Fisher, Cyder, Annus, Spillane와 McCarthy(2007)의 연구에서, UPPS 척도와 5요인 성격모델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따라, 4요인 위계모델(긴급성, 감각추구, 계획성 부족과 신중성 부족이 신중성 요인 2차 상위 요인으로 묶이는 모델)을 가정하였고, 이는 4요인이 상호 관련을 보이는 4요인 모델보다 적합한 모델임을 증명하였다. Billieux 등(2012)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근거에 따라, UPPS-P 척도의 5요인 위계모델(부정 긴급성과 긍정 긴급성은 긴급성 상위 2차 요인에 묶이고, 계획서 부족과 지속성 부족은 신중성 상위 2차 요인에 묶이고, 감각추구는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모델)과 5요인 모델간의 적합성을 비교한 결과, 5요인 위계모델이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델로 확인되었다.

외국에서는 UPPS-P 척도를 이용한 충동성 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UPPS-P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김현정(2003)의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정도의 기초적인 타당화 연구가 시도된 바 있다. UPPS 4개 하위 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긴급성 .83, 지속성 .79, 계획성 .90, 감각추구 .90으로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원저자와 유사한 요인구조가 확인되었는데, 4개 요인의 전체 설명량은 46%였으며, 요인 1(계획성 부족)은 14%, 요인 2(감각추구)는 13%, 요인 3(긴급성)은 10%, 요인 4(지속성 부족)는 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쉽게도 김현정의 연구에서는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UPPS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증하기에 다

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최근 전주리(2011)의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이 시행되었으나 표본수가 작고 긍정적 긴급성을 제외한 UPPS 4 요인만을 검증하였다. 이에 대해 전주리(2011)는 UPPS는 기존에 사용하던 충동성 척도들을 통합적으로 요인분석하여 개발되었고, 이후에 추가된 긍정적 긴급성 요인은 연구자들이 예비문항을 선정하여 설명량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개발된 차이점을 지적하며, 두 척도의 개발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UPPS 45문항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UPPS-P 5요인과 Barrat 충동성 척도의 총점, Shapiro 통제감 척도 총점과의 상관만을 분석하였을 뿐, 각각의 충동성 요인에 대한 세분화된 수렴타당도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긍정 긴급성이 다른 4가지 요인들과 개발과정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충동성을 구성하는 독립적인 하위 요인이라는 점이 원저자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고(Cyder et al, 2007), 외국 연구에서도 5요인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검증되고 있다(Billieux et al, 2012). 긍정 긴급성과 다른 4요인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충동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긍정 긴급성을 포함한 5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 타당화 연구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긍정적 긴급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대학생 대상으로 빈안한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를 실시한 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원 척도 요인구조가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도 적합한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밖에 내적 합치도와 남녀간의 차이를

검증하고, 5요인 각각에 대한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62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10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615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응답자 중에서, 남자는 총 309명(50.2%), 여자 총 306명(49.8%)이었다. 1학년은 203명(33%), 2학년은 156명(25.4%), 3학년은 147명(23.9%), 4학년은 105명(17.1%)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23세(SD=.14)였고 연령의 범위는 17세에서 55세였다.

### 측정도구

####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UPPS-P)

UPPS 4요인(45문항)은 김현정(2003)과 이상선(2004)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와 심리학 박사과정생이며 영어에 능통한 임상심리전문가 1인이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긍정적 긴급성에 해당하는 14문항은 본 연구자와 영어에 능통한 임상심리전문가 1인이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UPPS-P 척도의 번역본을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원생 1인에게 의뢰하여 역번역을 했다. 번역과 역번역한 척도를 비교 검토하여 원본과 역번역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문항들은 한국인 전문 번역가에게 재번역을 의뢰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1차 번역본을 다시 원저자인

Cyder 교수의 한국인 박사과정생 1인이 역번역하였다. 마지막으로 Cyder 교수가 역번역본과 원본과의 불일치를 검토하였고 연구자가 피드백을 바탕으로 비교 검토하여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이 번역본을 심리학과 대학원생 10명에게 실시하여 문장이나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 어색하거나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아 문장을 다듬어 최종본을 완성하였다(부록 포함).

이렇게 번안된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UPPS-P)는 총 5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 '매우 동의한다', 2점 '어느 정도 동의한다', 3점 '동의 하지 않는다', 4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범위의 4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적인 성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부정적 긴급성 12문항, 긍정적 긴급성 14문항, 계획성 부족 11문항, 지속성 부족 10문항, 감각추구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Barratt 충동성 척도(Barratt Impulsiveness**

**Scale-11: BIS-11)**

BIS(Barratt, 1959)의 11판을 국내에서 이현수(1992)가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BIS는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된 4점 리커트식 자기 보고식 척도이며, 비계획 충동성 9문항, 운동 충동성은 8문항, 인지 충동성 6문항의 세 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가끔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범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지영과 황순택의 연구(2011)에서, BIS-11 총점 신뢰도는 .79, 인지 충동성 .49, 운동 충동성 .76, 비계획 충동성은 .4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가 .82이었으며, 각 하위 요인별로 비계획 충동성이 .62, 운동 충동성이 .76, 인지 충동성이 .58로 나타났다.

**감각추구 성향 척도(Sensation Seeking**

**Scale: SSS)**

본 연구에서는 오미경(1996)이 Arnett(1994)의 감각추구 성향 척도(20문항)를 예비조사를 거쳐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거하고, Zuckerman의 감각추구척도(1983) 4문항과 오미경(1996)이 작성한 3문항을 추가하여 총 22문항으로 구성된 4점 리커트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조금 그렇다', 4점 '아주 그렇다' 범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각추구적 성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오미경(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0였고,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아이젠크 충동성 척도(Eysenck Impulsivity**

**Scale: EIS)**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Eysenck가 제작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현수(1985)가 제작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4개의 하위 요인 ① 무계획 충동성 11문항, ② 정서적 통제결함 8문항, ③ 행동통제결함 8문항, ④ 전반적 정서조절결함 6문항 등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예, 아니오로 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황재한의 연구(1999)에서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86이었고, 하위 요인별로 무계획성 .73, 정서통제결함 .73, 행동통제결함 .73, 정서조절결함은 .6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UPPS-P 척도의 긴급성 요인과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게 위해 무계획성 충동성

을 제외한 정서통제결함, 행동통제결함, 전반적 정서조절결함 요인만을 포함하는 총 22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처벌보상민감성 척도(Sensitivity to Punishment and Sensitivity to Reward Questionnaire: SPSRQ)**

Torrubia 등(2001)에 의해 개발된 자기 보고식 척도이며, 처벌민감성(Sensitivity to Punishment: SP)과 보상 민감성(Sensitivity to Reward: SR)의 두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된다. SP와 SR 척도가 각각 24문항씩을 포함하여 총 문항 수는 48문항이다. SPSRQ는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행동 활성화 체계(SR)과 행동 억제 체계(SP)의 두가지 신경심리학적 체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Gray, 1987; Newman & Wallace, 1993). 이 척도는 이원반응 자기보고 측정도구이나 본 연구에서는 김태연(2010)이 1점 '전혀 아니다', 2점 '아니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범위의 4점 척도로 변환한 것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보상 민감성과 처벌민감성이 증가됨을 의미한다. 김태연(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SP척도가 .87, SR 척도가 .81이었다. 본 연구에서 SP척도 .82, SR척도 .77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UPPS-P 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점과 5요인 각각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UPPS-P 척도 5요인과 Barratt 충동성 척도(BIS-11), 감각추구성향 척도(SSS), 아이젠크 충동성 척도(EIS), 및 처벌보상민감성 척도

(SPSRQ)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UPPS-P 척도 총점과 각각의 5요인들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UPPS-P 척도 5요인 구조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남녀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18.0과 AMOS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Whiteside와 Lynam(2001) 및 Cyder 등(2007)가 제작한 UPPS-P 척도 한국판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은 5가지 모델의 적합도 지수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1요인 모델은 모든 문항들이 충동성 단일 요인에 부하되는 모델로서 적합도가 양호하지 못하였다(df=170, TLI=.554, CFI=.601, RMSEA=.147). 3요인 모델은 긴급성(부정 긴급성과 긍정 긴급성을 통합), 신중성 부족(계획성 부족과 지속성 부족을 통합), 감각추구로 구성되는 모델인데 이 역시 적합도가 양호하지 못하며(df=167, TLI=.888, CFI=.902, RMSEA=.074), 5요인이나 5요인 위계모델에 비해 카이제곱값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요인 모델에서는 5가지 요인들이 서로 상관을 보이는 모델로서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df=160, TLI=.946, CFI=.955, RMSEA=.051). 5요인 위계모델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 긴급성과 부정 긴급성이 긴급성 상위 요인에 묶이고, 계획성 부족

표 1. UPPS-P 및 경쟁모형들의 적합도 지수

	$\chi^2$	df	TLI	CFI	RMSEA
1요인 모델	2435.63	170	.554	.601	.147
3요인 모델	724.84	167	.888	.902	.074
5요인 모델	417.28	160	.946	.955	.051
5요인 위계모델	443.20	163	.942	.951	.053

주. 1요인모델= 모든 문항들이 충동성 단일 요인에 부하됨. 3요인모델= 긴급성, 신중성, 감각추구. 5요인 모델 = 부정 긴급성, 긍정 긴급성, 계획성 부족, 지속성 부족, 감각추구. 5요인 위계모델= 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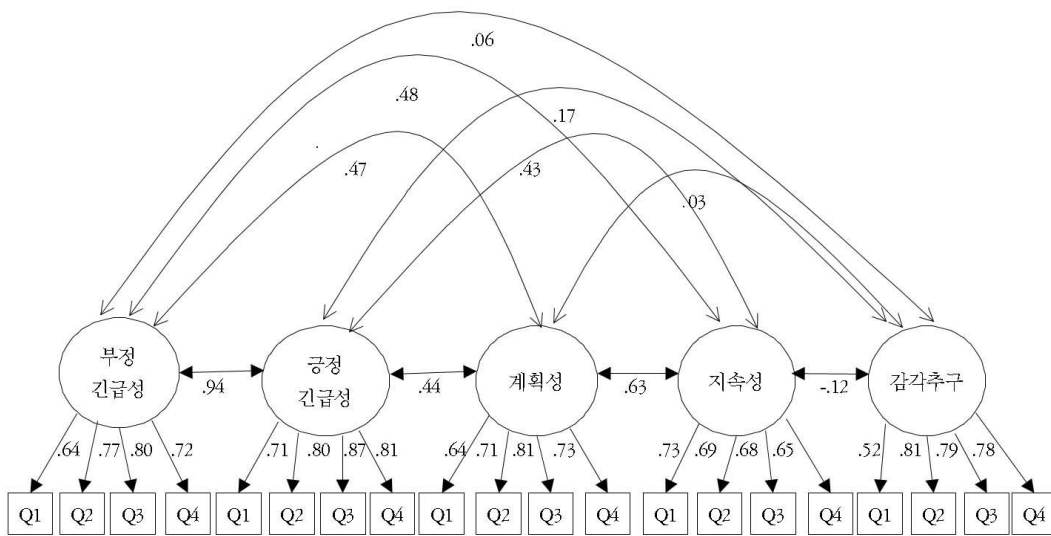


그림 1. 5요인 모델

과 지속성 부족은 신중성 부족 상위 요인에 묶이며, 감각추구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구성되는 모델이다(df=163, TLI=.942, CFI=.951, RMSEA=.053). 5요인 위계모델과 5요인 모델은 적합도 지수는 비슷하였고, 간명도 지표인 자유도는 5요인 위계모델이 5요인모델보다 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델간의 카이제곱 값 차이를 비교해 보면,  $\Delta\chi^2$ 는 25.92(df=3)로 df가 3일 때  $\chi^2$  기각값인( $p < .05$ ) 7.81보다 크

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값에 근거할 때, 5요인 모델이 5요인 위계모델보다 나은 모델일 수 있겠으나, 카이제곱 값 검증은 영가설이 너무 엄격하여 모델이 조금만 틀려도 기각되는 점과 표본크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문제점 때문에 모형을 평가하는데 카이제곱 값 검증보다 모델 적합도 지수가 널리 이용된다(홍세희, 2000). 따라서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와 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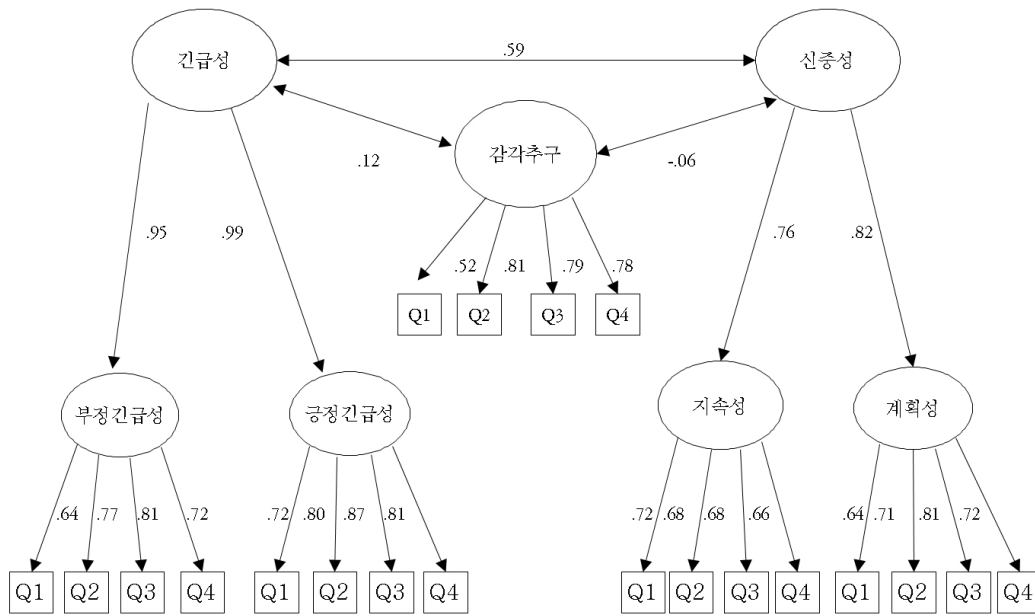


그림 2. 5요인 위계모델

도 지표인 자유도에 근거할 때, 5요인 위계모델이 5요인 모델보다 간명하고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 UPPS-P 척도가 계획성과 지속성 부족이 5요인 성격모델의 신중성 부족 요인과 관련되며, 긍정 긴급성과 부정 긴급성은 신경증 요인과 관련되고, 감각추구는 외향성 요인과 관련된다는 5요인 성격모델의 이론적 토대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요인 위계모델은 UPPS-P 척도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다. Billieux 등 (2012)의 연구에서도 적합도 지수와 요인들간의 상관계수에 근거하여 5요인 위계적 모델이 5요인 모델보다 적합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UPPS-P 척도의 이론적 근거, 적합도 지수 및 간명도를 종합할 때, 5요인 위계모델의 관점에서 5가지 충동성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5요인 위계모델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 두집단으로 구별한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하였다. 자유모형과 요인부하량이 제한된 모형1(Measurement weights)과의  $\Delta\chi^2$ 는 15.30(df=15)로 df가 15일 때  $\chi^2$  기각값인( $p < .05$ ) 25.00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남자와 여자 집단 모두 5요인 위계모델이 적합하며, 남녀 모두 동일한 요인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5요인 위계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 $\chi^2=326.61$ ,  $df=163$ , TLI= .932, CFI= .942, RMSEA =.057)와 여자 모두 적절한 적합도 지수가 확인되었다( $\chi^2=375.75$ ,  $df=163$ , TLI= .915, CFI= .927, RMSEA =.065). 따라서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 모두 5요인 위계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와 하위 척도간의 상관

한국판 UPPS-P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긍정 긴급성은 .92, 부정 긴급성은 .85, 계획성 부족 .80, 지속성 부족 .78, 감각추구 .84이며,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1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간의

상관계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하위 요인들은 상호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긍정 긴급성과 부정 긴급성간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r=.81, p<.001$ ), 계획성 부족과 지속성 부족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51, p<.001$ ). 긍정 긴급성은 부정 긴급성 이외에도 계획성( $r=.38, p<.001$ ), 지속성 부족( $r=.34, p<.001$ ), 및 감각추구와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r=.10, p<.005$ ). 반면에 부정 긴급성은 계획성과 지속성 부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만( $r=.40, p<.001$ ), 감각추구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감각추구는 긍정 긴급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 $r=.10, p<.001$ ), 지속성 부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r=-.15, p<.001$ ), 부정 긴급성, 계획성 부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2. UPPS-P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 평균 및 표준편차

하위 요인들	문항수	내적 합치도 계수	평균	표준편차
긍정 긴급성	14	.92	31.73	8.22
부정 긴급성	12	.85	28.95	5.96
계획성 부족	11	.81	21.83	4.75
지속성 부족	10	.78	22.26	4.31
감각추구	12	.84	30.34	5.80
UPPS-P 전체	59	.91	134.88	19.98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성별에 따른 한국판 UPPS-P 척도 하위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t 검증치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남녀간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한 결과, UPPS-P 총점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여자는 부정

표 3. UPPS-P 하위 요인들간의 상관

		1	2	3	4	5	6
1	긍정 긴급성	1					
2	부정 긴급성	.81**	1				
3	계획성 부족	.38**	.40**	1			
4	지속성 부족	.34**	.40**	.51**	1		
5	감각추구	.10*	.01	-.00	-.15**	1	
6	UPPS-P 총점	.86**	.83**	.63**	.55**	.33**	1

\* $p < .05$ , \*\* $p < .001$

표 4. 성별에 따른 UPPS-P 척도 하위요인별 차이

		남자(n=309)    여자(n=306)		t
		M(SD)	M(SD)	
1	긍정 긴급성	30.85(8.11)	32.62(8.25)	-2.68
2	부정 긴급성	27.98(5.90)	29.92(5.86)	4.12**
3	계획성 부족	21.62(4.95)	22.03(4.53)	-1.07
4	지속성 부족	21.66(4.36)	22.86(4.17)	-3.47*
5	감각추구	31.22(5.57)	29.44(5.89)	3.86**
6	UPPS-P 총점	133.16(20.24)	136.61(19.59)	-2.15

\* $p < .05$ , \*\* $p < .001$

긴급성,  $t=-4.12$ ,  $p < .001$ , 지속성 부족,  $t=-3.47$ ,  $p < .05$ 에서 남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남자는 여자보다 감각추구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t=3.86$ ,  $p < .001$ .

수렴타당도

UPPS-P 척도와 비슷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Barratt 충동성 척도(BIS), Arnett의 감각추구성향척도

(SSS), 처벌보상민감성척도(SPSRQ), 아이젠크 충동성 척도(EIS)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표 5). 이 척도들은 전반적으로 UPPS-P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UPPS-P의 계획성 부족 요인은 Barratt 충동성 척도의 3가지 하위 요인 중에서 비계획성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 $r=.40$ ,  $p < .001$ )을 보였으나, 지속성 부족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42$ ,  $p < .001$ ). 지속성 부족과 유사한 개념인 Barratt 인지 충동성은 예상한 바와 같이 지속성 부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57$ ,  $p < .001$ ). UPPS-P 감각추구 요인은 Arnett의 감각추구 척도와 상관( $r=.62$ ,  $p < .001$ )을 보였다. UPPS-P 긴급성 요인과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판단되어 측정된 아이젠크 충동성 척도 역시 긍정긴급성( $r=.58$ ,  $p < .001$ )과 부정 긴급성( $r=.64$ ,  $p < .001$ )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긍정 긴급성과 부정 긴급성은 보상민감성과 처벌민감성 두 요인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UPPS-P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지지하고 있다.

표 5. UPPS-P 하위 요인들과 다른 충동성 척도들과의 상관

	BIS-11			총점	SSS 총점	SPSRQ		EIS	
	비계획 충동성	운동 충동성	인지 충동성			SR	SP	총점	총점
긍정 긴급성	.38**	.45**	.40**	.52**	.20**	.37**	.25**	.42**	.58**
부정 긴급성	.38**	.46**	.47**	.55**	.10**	.31**	.29**	.42**	.64**
계획성 부족	.40**	.49**	.45**	.59**	.08	.07	-.07	-.01	.29**
지속성 부족	.42**	.39**	.57**	.58**	-.03	-.00	.24**	.18**	.24**
감각추구	.06	.08	-.10*	.03	.62**	.27**	-.31**	-.06	.11**
UPPS-P	.49**	.56**	.51**	.67**	.34**	.36**	.12**	.32**	.60**

\* $p < .05$ , \*\* $p < .001$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Whiteside와 Lynam(2001) 및 Cyder 등(2007)이 개발한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UPPS-P)를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수도권 소재 61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를 실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및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한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국내에서도 위계적 5요인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UPPS-P 전체 척도 및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 지표가 적절하고, 다른 척도들과의 수렴타당도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부정 긴급성과 긍정 긴급성이 긴급성 요인으로 묶이고, 계획성 부족과 지속성 부족은 신중성 부족으로 묶이며, 감각추구가 독립적인 요인으로 구성되는 5요인 위계모델은 5요인 모델과 적합도는 비슷하였으나, 5요인 위계모델이 5요인 모델보다 간명도 지표인 자유도가 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UPPS-P 척도와 5요인 성격모델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5요인 위계모델을 가장 간명하고 적합한 모델로 채택하였다. 5요인 성격모델의 관점에서 충동성을 통합하고 있는 UPPS-P 척도의 특성을 5요인 위계모델이 잘 반영하고 있다. UPPS-P 척도는 충동적인 행동에 이르는 5가지 성격적 경로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부정 긴급성과 긍정 긴급성으로 구성되는 긴급성은 5요인 성격모델의 신경증 경로에 해당하고, 계획성 부족과 신중성 부족은 5요인 성격모델의 신중성 경로와 관련되며, 감각추구는 외향성 경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5요인 위계모델은 충동성을 성격적 관점에서

통합하고 분류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Whiteside & Lynam, 2001).

둘째, 부정 긴급성과 긍정 긴급성은 모두 강한 부정 혹은 긍정 감정 상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충동적인 행동 경향성으로 두 개념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yder 등(2007)의 연구에서  $r=.37$ , 스페인 타당화 연구(Verdejo-García et al, 2010)에서  $r=.67$ 로 나타난 점과 비교할 때, 한국판에서는 두 개념 간의 상당히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 $r=.81$ ). 전주리(2011)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 바 ( $r=.78$ ), 국내에서 두 개념 간의 공통성분이 높아 서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후속 연구에서 두 요인이 실제 문제행동을 예측하는데 고유한 설명변량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 두 요인 간의 관련성이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긴급성은 아이젠크 충동성 척도와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수렴타당도가 지지되었다. 긴급성은 또한 처벌보상민감성 척도와 관련성을 보였다. 계획성 부족은 처벌보상민감성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지속성 부족은 단지 처벌민감성과 관련성을 보였다. 감각추구는 보상민감성과는 정적상관, 처벌민감성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감각추구는 보상민감성과, 지속성 부족은 처벌민감성과 관련성을 보였고, 긍정 긴급성과 부정 긴급성이 보상민감성과 처벌민감성 모두와 상관을 보였던 스페인 타당화 연구와 일치한다(Verdejo-García, et al, 2010). 긴급성이 다른 충동성 요인들과 달리 서로 상반되는 동기 체계인 보상민감성과 처벌민감성 모두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 점을 Gray의 이론(1981)을 적용해 해석해 보자

면, 긴급성이 높은 사람들은 BAS(Behavioral Activation System)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긍정적 유인가에 대한 반응수준이 높으면서도 BIS(Behavioral Inhibition System) 민감도 또한 높아 외부 자극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결과에 민감하여 내면의 긴장되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긴급성이 높은 사람들의 이러한 특성이 정신병리의 심각성을 예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계획성 부족은 지속성 부족과 함께 5요인 성격모델의 신중성 부족 요인과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 지속성과 계획성 부족 두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선행 연구들(Kämpfe & Mitte, 2010; Verdejo-García et al, 2007; Whiteside & Lynam, 2001)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hiteside와 Lynam(2001)은 계획성 부족은 행동을 계획하고, 결과를 예상하는 불충분한 능력이나 실행 기능에서의 결손을 포함한 장애들(반사회성 성격장애, 치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지속성 부족은 학업불성실성이나 ADHD 부주의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안된 바 있다(Miller et al, 2003; Smith et al, 2007). 본 연구에서 계획성 부족과 지속성 부족은 Barratt 충동성 척도의 비계획성과 인지 충동성 요인과 상관을 보여서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감각추구는 긍정 긴급성과 상관을 보였고, 지속성 부족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추구와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는 연구마다 비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Whiteside와 Lynam(2001)의 연구에서 감각추구는 본 연구에서 마찬가지로 지속성 부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r=-.14$ ). 프랑스와 독일 타당화 연구에서, 감각추구는 계획성 부족과 정적 상관( $r=.37$ ,

$r=.49$ )을 보였다. 반면에 스페인 타당화 연구에서는 지속성 부족을 제외한 부정 긴급성( $r=.29$ ), 긍정 긴급성( $r=.36$ ), 및 계획성 부족( $r=.30$ )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의 5요인 위계모델에서도 감각추구는 긴급성, 신중성과의 상관계수가 낮아서, 충동성의 하위 요인으로 포함시키기에 다소 이질적인 개념으로 보인다. 위험감수나 위험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감각추구는 충동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Helmers, Young, & Pihl, 1995), 다른 한편에서는 감각추구가 충동성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Everitt, Belin, Economidou, Pelloux, Dalley, & Robbins, 2008). 감각추구는 매우 폭넓은 구성개념이어서 충동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바, 앞으로는 충동성과 감각추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다섯째, UPPS-P 척도에서의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부정 긴급성과 지속성 부족 점수가 높았고, 남자는 여자보다 감각추구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흔히 남자가 여자보다 충동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남성의 높은 충동적인 성향은 알코올, 니코틴, 및 카페인 사용의 증가와 관련된다고 보고되었으나(Waldeck & Miller, 1997), 이와 반대되는 연구결과도 있다. NEO-PI-R을 이용한 Costa, Terracciane, 및 McCrae(2001)의 연구에서는, 남자는 UPPS-P의 감각추구 요인과 관련된 흥분추구 요인(excitement seeking facet)에서 여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여자는 부정적 긴급성과 관련이 있는 충동성 요인(impulsiveness facet)에서 남자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UPPS-P 척도와 성차의 관계를 분석한 Cyder(2011)의 연구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감각

추구와 긍정 긴급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UPPS 프랑스판 타당화 연구에서는 남자는 여자보다 감각추구와 지속성 부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Van der Linden et al, 2006). 이들 연구 표본이 모두 대학생 집단으로 동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 프랑스, 및 한국간의 사회문화적 차이가 이러한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일 수 있겠다. 서로 다른 문화권간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프랑스, 및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감각추구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UPPS-P 척도는 기존의 충동성 척도에서 측정하였던 개념들뿐 아니라 새로운 하위 요인들(긍정 긴급성, 부정 긴급성, 지속성 부족)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신과 장애에서 충동성의 역할이 미비했던 것은 기존의 충동성 척도들이 실제로 다양한 현상으로 존재하는 충동성 하위 요인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 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Moeller, Barratt, Dougherty, Schimiz & Swann, 2001). 또한 정신과 장애에서 충동적인 행동이 강한 정서적 압력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의 충동성 척도에서는 정서적 충동성 요인이 부재하였던 점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는 인지, 정서, 및 행동적 요소를 아우르는 충동성 개념을 포괄하고 있어 정신장애에서 충동성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긍정적 긴급성을 포함한 한국판 UPPS-P 5요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첫 연구라는데 그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대학생 표본은 수도권 소재 사회과학 및 이공계열 학생들을 골고루 포함하는 있

으며 비교적 표본수가 크고 남녀 비율이 비슷하게 표집되었다. 이런 점은 심리학과 소속 대학생 대상이며, 표본의 크기가 작고, 여학생으로 편중된 문제점을 보였던 외국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것으로, UPPS-P 척도의 타당도를 확증하는데 기여한 점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UPPS-P 척도에 대한 구성타당도와 수렴타당도만을 확인한 점이다. 충동성은 예언타당도나 생태학적 타당도가 중요한 구성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 연구에서는 신경심리학적 측정치들이나 실제 생활에서의 충동적인 행동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으로 표본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일반 성인, 청소년, 및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고문헌

김태연 (2010). 강화민감성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도박의 시작과 지속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현정 (2003). 완벽주의, 충동성, 자기효능감, 및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상선 (2004). 거식행동과 폭식행동에 자기 평가의 신체비중, 신체 불만족, 완벽주의, 충동성이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현수 (1985). 충동성 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이현수 (1992). 충동성 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전주리 (2011). 정서조급성과 폭식행동의 관계.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오미경 (1997).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지영, 황순택 (2011). 경계선과 반사회성 성격병리에서의 충동성과 공격성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 71-92.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재한 (1999). BPD 경향성 집단과 ADD 경향성 집단의 충동성의 차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rnett, J. (1994). Sensation seeking: A new conceptualization and a new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6, 289-296.
- Barratt, E. S. (1959). Anxiety and impulsiveness related to psychomotor efficienc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9, 191-198.
- Barratt, E. S. (1972). Anxiety and impulsiveness: Toward a neuropsychological model. In C. D. Spielberger(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pp.195-122). New York: Academic Press.
- Barratt, E. S. (1993). Impulsivity: Integrating cognitive, behavioral,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data. In W. McCowan, J. Johnson, & M. Shure(Eds.), *The impulsive client: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ratt, E. S., & Patton, J. H. (1983). Impulsivity: Cognitive, behavioral, and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In M. Zuckerman(Ed.), *Biological basis of sensation-seeking, impulsivity, and anxiety*(pp. 77-116).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illieux, J., Gay, P., Rochat, L., & Van der Linden, M. (2010). The role of urgency and its underlying psychological mechanisms in problem behavior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8, 1085-1096.
- Billieux, J., Rochat, L., Ceschi, G., Carré, A., Offerlin-Meyer, I., Defeldre, A., Khazaal, Y., Besche-Richard, C., & Van der Linden, M. (2012). Validation of a short French version of the 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 *Comprehensive Psychiatry*, 53, 609-615
- Billieux, J., Rochat, L., Rebetez, M. M. L., & Van der Linden, M., (2008). Are all facets of impulsivity related to self-reported compulsive buying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1432-1442.
- Billieux, J., Van Der Linden, M., & Rochat, L. (2008). The role of impulsivity in actual and problematic use of the mobile phone.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2, 1195-1210.
- Buss, A. H., & Plomin, R. (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 Carver, C. S., & White, T. L. (1994). Behavioral inhibition, behavioral activation. and affective responses to impending reward and punishment: The BIS/B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319-333.
- Claes, L., Nederkoorn, C., Vandereycken, W., Guerrieri, R., & Vertommen, H. (2006). Impulsiveness and lack of inhibitory control in

- eating disorders. *Eating Behaviors*, 7, 196-203.
- Cloninger, C. R., Przybeck, T. R., & Svrakic, D. M. (1991). The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US normative data. *Psychological Reports*, 69, 1047-1057.
- Costa, P. T., & McCrae, R. R. (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osta, P. T., & Terracciano, A., & McCrae, R. R. (2001). Gender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 across cultures: Robust and surprising fi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322-331.
- Cyder, M. A. (2013). Impulsivity and the sexes: Measurement and structural invariance of the 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 *Assessment*, 20, 86-97.
- Cyder, M. A., Flory, K., Rainer, S., & Smith, G. T. (2009). The role of personality disposition to risky behavior in predicting fist year college drinking. *Addiction*, 104, 193-202.
- Cyder, M. A., & Smith, G. T. (2007). Mood based rash action and its components: Positive and negative urgen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839-850.
- Cyder, M. A., & Smith, G. T. (2008a). Clarifying the role of personality dispositions in risk for increased gambling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 503-508.
- Cyder, M. A., & Smith, G. T. (2008b). Emotion based dispositions to rash action: Positive and negative urgency. *Psychological Bulletin*, 134, 807-828.
- Cyder, M. A., Smith, G. T., Spillane, N. S., Fischer, S., Annus, A. M., & Peterson, C. (2007). Integration of impulsivity and positive mood to predict risky behavio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positive urgency. *Psychological Assessment*, 19, 107-118.
- Depue, R. A., & Collins, P. F. (1999). Neurobiology of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Dopamine, facilitation of incentive motivation, and extravers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2, 491-517.
- Dickman, S. J. (1990).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impulsivity: Personality and cognitive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95-102.
- Eysenck, S. B. G., Pearson, P. R., Easting, G., & Allsopp, J. F. (1985). Age norms for impulsiveness, venturesomeness, and empathy in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613-619.
- Evenden, J. L. (1999). Varieties of impulsivity. *Psychopharmacology*, 146, 348-361.
- Everitt, B. J., Belin, D., Economidou, D., Pelloux, Y., Dalley, J. W., & Robbins, T. W. (2008). Neural mechanisms underlying the vulnerability to develop compulsive drug seeking habits and addictio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B: Biological Sciences*, 363, 3125-3135.
- Gerbing, D. W., Ahadi, S. A., & Patton, J. H. (1987).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impulsivity: Components across the behavioral and self report domai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2, 357-379.
- Gray, J. A. (1981). A critique of Eysenck's theory of personality. In H. J. Eysenck(Ed.), *A model for personality*(pp. 246-276). Berlin: Springer-

- Verlag.
- Gray, J. A. (1987). *The psychology of fear and stres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lmers, K. F., Young, S. N., & Pihl, R. O. (1995). Assessment of measures of impulsivity in healthy male volunte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 927-935.
- Jackson, D. N. (1984). *Personality research from manual*. Goshen, NY: Research Psychological Press.
- Kämpfe, N. & Mitte, K. (2009). A German validation of the UPPS Impulsive Behavior Scale. Further evidence for a four - dimensional model for impulsivit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5*, 252-259.
- Miller, J., Flory, K., Lynam, D., & Leukefeld, C. (2003). A test of the four factor model of impulsivity - related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4*, 1403-1418.
- Moeller, F. G., Barratt, E. S., Dougherty, D. M., Schmitz, J. M., & Swann, A. C. (2001). Psychiatric aspects of impulsiv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 1783-1793.
- Newman, J. P., & Wallace, J. F. (1993). Divergent pathways to deficient self-regulation: Implications for disinhibitory psychopathology in childre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 699-720.
- Patton, J. H., Stanford, M. S., & Barratt, E. S. (1995). Factor structure of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 768-774.
- Reeve, C. L. (2007). Functional impulsivity and speeded ability test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election and Assessment, 15*, 56-62.
- Smith, G. T., Fischer, S., Cyders, M. A., Annus, A. M., Spillane, N. S., & McCarthy, D. M. (2007). On the validity and utility of discriminating among impulsivity-like traits. *Assessment, 14*, 155-170.
- Spillane, N. S., Smith, G. T., & Kahler, C. W. (2010). Impulsivity - like traits and smoking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35*, 700-705.
- Stanford, M. S., & Barratt, E. S. (1992). Impulsivity and the multi-i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 831-834.
- Stanford, M. S., Mathias, C. W., Dougherty, D. M., Lake, S. L., Anderson, N. E. & Patton, J. H. (2009). Fifty years of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 An update and review.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 385-395.
- Tellegen, A. (1982). *Mult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manual*.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Torrubia, R., Avila, C., Molto, J., & Caseras, X. (2001). The Sensitivity to Punishment and Sensitivity to Reward Questionnaire (SPSRQ) as a measure of Gray's anxiety and impulsivity dimens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 837-862.
- Van der Linden, M., D'Acremont, M., Zermatten, A., Jeremian, F., Larøi, F., Willems, S., Juillerat, A. C., & Bechara, A. (2006). A French adaptation of the UPPS Impulsive Behavior Scal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2*, 38-42.
- Verdejo-García, A., Bechara, A., Recknor, E. C., &



- Pérez-García, M. (2007). Negative emotion-driven impulsivity predicts substance dependence problem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91*, 213-219.
- Verdejo-García, A., Lozano, Ó., Moya, M., Ángel Alcázar, M., Pérez-García, M. (2010).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Spanish version of the 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 Reliability, validation and association with trait and cognitive impuls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Assessment, 92*, 70-77.
- Waldeck, T. L., & Miller, L. S. (1997). Gender and impulsivity differences in illicit substance use. *Journal of Substance Abuse, 9*, 269-275.
- Whiteside, S. P., & Lynam, D. R. (2001). The five factor model and impulsivity: Using a structural model of personality to understand impuls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669-689.
- Whiteside, S. P., & Lynam, D. R. (2003). Understanding the role of impulsivity and externalizing psychopathology in alcohol abuse: Application of the UPPS Impulsive Behavior Scale. *Experimental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11*, 210-217.
- Whiteside, S. P., & Lynam, D. R., Miller, J. D., & Reynolds, S. K. (2005). Validation of the UPPS Impulsive Behavior Scale: A four-factor model of impulsivity.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9*, 559-574.
- Yuen, K. S. L., & Lee, T. M. C. (2003). Could mood state affect risk-taking decision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5*, 11-18.
- Zapolski, T. C. B., Cyders, M. A., & Smith, G. T. (2009). Positive urgency predicts illegal drug use and risky sexual behavior.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3*, 348-354.
- Zermatten, A., & Van der Linden, M. (2008). Impulsivity in non clinical persons with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1824-1830.
- Zuckerman, M. (1983). A Biological theory of sensation seeking. In M. Zuckerman (Ed.), *Biologic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impulsivity, and anxiety*, Hillsdale, NJ: Erlbaum.
- Zuckerman, M. (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soci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원고접수일 : 2013. 10. 1.  
수정원고접수일 : 2014. 1. 6.  
게재결정일 : 2014. 1. 13.

## A Korean Validation of the 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 in College Students

Sun Young Lim

Young Ho Le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provide construct and convergent validation for Korean 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 The sample us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615 undergraduate students. To examine the five factor construct of the original measure of UPPS-P,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was utilized. CFA supported a hierarchical model comprising 2 higher order factors of urgency(resulting from negative and positive urgency) and lack of conscientiousness(resulting from lack of premeditation and lack of perseverance) as well as separate factor of sensation seeking. The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s for five factors within Korean UPPS-P were at reasonable level. Convergent validity was examined through investigating correlations between UPPS-P and other scales(Barratt impulsive scale, Arnett's sensation seeking scale, Eysenck impulsive scale, SPSRQ scale).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Korean version of the UPPS-P presents good psychometric properties and may be considered a promising instrument for both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UPPS-P, impulsive behavior, urgency, validation

## 부 록

###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UPPS-P)

1. 나는 삶에 대해 자제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고 있다.
2. 나는 내 충동들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나는 일반적으로 새롭고 짜릿한 경험과 감각을 추구한다.
4. 대개 나는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는 편이다.
5. 기분이 아주 좋을 때면, 나중에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저질러 버리곤 한다.
6. 대개 나는 주의 깊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편이다.
7. 나는 (음식이나 담배 등에 대한) 욕구를 잘 자제하지 못한다.
8. 나는 무엇이든 한 번씩은 시도해본다.
9. 나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10. 기분이 아주 좋을 때, 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말려드는 경향이 있다.
11. 나는 생각없이 불쑥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12. 나는 가끔 나중에 벗어나기를 바라는 일에 개입되곤 한다.
13. 나는 다음 동작을 금방 선택해야 하는 운동과 게임을 좋아한다.
14. 일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하면 몹시 신경이 쓰인다.
15. 기분이 아주 좋을 때, 나는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16. 나는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차분히 생각해보는 편을 좋아한다.
17. 나는 기분이 나쁘면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나중에 후회할 일을 종종 한다.
18. 나는 수상 스키를 좋아할 것 같다.
19. 무엇이든 일단 시작한 뒤에는 중간에 멈추는 걸 몹시 싫어한다.
20. 나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면 통제력을 잃는 경향이 있다.
21.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확실히 파악하기도 전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22. 가끔 기분이 나쁠 때, 하면 할수록 기분이 더 나빠지는 행동을 하면서도 잘 멈추지 못한다.
23. 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상당히 즐긴다.
24. 나는 쉽게 집중한다.
25. 뺨을 잃을 만큼 기분이 좋으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26. 나는 낙하산 점프를 좋아할 것 같다.
27. 나는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낸다.
28. 나는 합리적이고 '분별 있는' 시각과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따르는 편이다.

29. 나는 기분이 상하면 종종 생각 없이 행동한다.
30.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31. 나는 비록 조금은 무섭고 관습에 어긋나는 일일지라도, 새롭고 짜릿한 경험이나 감각을 환영한다.
32. 나는 제 시간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스스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33. 대개 나는 이성적이고 주의 깊은 생각 끝에 마음을 결정하는 편이다.
34. 나는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들 때,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을 가끔 한다.
35. 내가 매우 흥분했을 때 하는 행동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충격을 받거나 걱정을 한다.
36. 나는 비행기 조종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
37. 나는 언제나 맡은 일을 해 낸다.
38. 나는 조심스러운 사람이다.
39. 감정에 따라 행동하려는 충동을 억제하기가 힘들다.
40. 뭔가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는 나중에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41. 때로 나는 조금은 겁이 나는 일들을 즐긴다.
42. 일단 내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나는 거의 항상 끝을 낸다.
43. 새로운 상황을 접하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편을 좋아한다.
44. 나는 기분이 상했을 때 생각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가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
45. 기뻐서 들떴을 때, 내가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46. 나는 높은 산 경사에서 스키를 타고 매우 빨리 내려오는 감각을 좋아할 것 같다.
47. 소소하게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모조리 무시해버릴 때가 있다.
48. 나는 보통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한다.
49. 내가 정말로 흥분하게 되면 나는 내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50. 한창 말다툼을 하다가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할 때가 자주 있다.
51. 나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싶다.
52. 내가 정말 흥분하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53. 나는 늘 내 기분을 통제한다.
54. 기분이 아주 좋을 때, 평소 같으면 편안하게 느낄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이 처해 있음을 문득 깨달을 때가 자주 있다.
55.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나는 모든 장단점을 고려한다.
56. 나는 차를 빨리 운전하는 것을 즐길 것 같다.
57. 기분이 아주 좋을 때는 욕구에 굴복해서 멋대로 행동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58. 가끔 나는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충동적으로 한다.
59. 기분이 아주 좋을 때 내가 했던 행동들에 놀라곤 한다.

**\*채점 방향(R은 역채점)**

부정 긴급성(12문항)

2 (R), 7(R), 12 (R), 17 (R), 22 (R), 29 (R), 34 (R), 39 (R), 44 (R), 50 (R), 53, 58 (R)

긍정 긴급성(14문항)

5 (R), 10 (R), 15 (R), 20 (R), 25 (R), 30 (R), 35 (R), 40 (R), 45 (R), 49 (R), 52 (R), 54 (R), 57 (R),  
59 (R)

계획성 부족(11문항)

1, 6, 11, 16, 21, 28, 33, 38, 43, 48, 55.

지속성 부족(10문항)

4, 9 (R), 14, 19, 24, 27, 32, 37, 42, 47 (R)

감각추구(12문항)

3 (R), 8 (R), 13 (R), 18 (R), 23 (R), 26 (R), 31 (R), 36 (R), 41 (R), 46 (R), 51 (R), 56 (R)